호남신문의 새 로고는
타원형의 우주안에 '태풍의 눈'을 형상화해
무한한 역동성과 함께 정의로운 언론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호 남 신 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8월 3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9-6000 1946년 10월 26일 창간 i-honam.com 제 3097호 (음력 1월 20일) 2021년 3월 3일 수요일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붉게 말라버린 보성 녹차 재배농가 냉해 피해 호소

6일 연속 영하 7도 이하 기온
해안가보다 내륙 피해 심해
"피해 조사 뒤 직·간접 보상"

2일 오후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철우 보성군수 등이 냉해 피해를 입은 보성 지역 녹차밭을 찾아 녹차 잎 상태를 살피는 모습. (사진 제공 = 전남 보성군)

보성의 대표 특산물 녹차가 지난 1월 폭설과 한파로 잎이 붉게 말라버리는 냉해 피해를 입었다.

2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1월12일부터 2월26일까지 지역 내 녹차 농가를 상대로 냉해 피해를 접수한 결과 98농가가 피해(152ha)를 호소했다. 보성 지역 전체 녹차 농가는 570농가이며, 총 재배면적은 755ha이다.

보성군은 냉해 피해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접수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냉해 피해는 해안가보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보성읍 쾌상리·미력면·복내면 등 내륙 지역 녹차밭에 집중됐다고 보성군은 설명했다.

보성 지역에는 지난 1월5일부터 6일동안 영하 7도 이하의 강추위와 폭설이 이어졌다.

냉해로 잎이 고사되면 결국 녹차나무의 일정 부문을 잘라줘야 한다. 이 작업만 수일 걸리는데다 작업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들어야 한다. 특히 고부가가치 상품인 봄철 첫 잎 수확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보성군은 이번 피해로 매년 4월 초부터 수확하는 우전·곡우 등 고급 첫물차 수확 시기가 일주일 이상 늦어지고, 고급차 수확량이 50~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날 오후 냉해 피해를 입은 녹차밭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농가를 격려했다.

보성군은 전남도와 협의, 이달 말까지 피해 상황을 정밀조사한 뒤 피해 녹차밭 가지 자르기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피해 농가에 대한 직·간접적 보상 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보성=김덕순 기자

등교 첫날인 2일 광주 남구 주월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1학년 학생들이 등원하고 있다.

설렘·우려속 광주·전남 학교 정상 개학

시·도교육청, 코로나19 확산 대비 각종 대책 마련

셀렘과 우려 속 광주·전남 각급 학교가 정상 개학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개학을 연기해야 했던 광주·전남교육청은 다양한 대책과 함께 새학년·새학기 학생들을 맞이했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 지역 유치원 285개원, 초등학교 154개교 중 153개교(1개교 공사중), 중학교 92개교, 고등학교 68개교, 특수학교 5개교 모두 정상 개학했다.

유치원생,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하며 원격수업 병행 때도 우선적으로 등교한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매일 등교한다.

초·중·고 300명 이하 학교, 300명 초과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는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교인원을 자율 결정한다.

시교육청은 개학에 앞서 코로나19에 대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쌍방향 수업 확대를 위한 광주 화상수업 플랫폼 '미더스'(MeetUs)를 구축 운영한다. '미더스'는 시교육청만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이 포함된 원격 화상 플랫폼으로, 이달 중 서비스를 개시한다. 학생·교직원 2만 명 동시접속이 가능하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전체 학교에 원격수업을 위한 1만1890대의 스마트기기도 보급할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광주 전체 학교의 일반교실에 무선인터넷망 구축을 완료한다.

개학을 앞둔 지난 1일까지 광주 전체 유·초·중·고(본청·직속기관·대안학교 포함) 523개교를 27개 권역으로 나눠 전문방역업체에 위탁해 특별방역을 진행했다.

단위학교에 '심리방역지원단'을 구성해 코로나19 확진 학생과 2주 자가격리 복귀 학생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위기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전남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수업 원칙에 따라 초등학교 429개교 중 364개교(84.8%), 중학교는 249개교 중 211개교(84.7%), 고등학교는 144개교 중 123개교(85.4%)가 이날 등교수업을 시작했다.

전남의 경우 현재 1.5단계로 특수학교·소규모학교·농산어촌학교가 매일 등교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달 초 '2021년 학사와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안내를 통해 학교 밀집도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등교수업일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각급 학교에 권고했다.

또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 등교수업 확대에 따른 학습격차 해소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난 2월 새학년 집중준비 기간을 운영, 방역과 교육계획 수립 등을 마쳤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대면·비대면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교육공동체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해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호 기자

'코로나·주식광풍 여파' 지난해 광주·전남 기업·가계대출 증가폭 확대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자료
여신, 증가규모 2배 가까이 늘어
中企 대출·투자자금 수요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주식시장 열기의 영향으로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기업과 가계의 빚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기관 수신과 여신의 증가 규모가 전년보다 확대됐다.

특히 여신의 경우 예금은행은 증가규모가 4조9701억원에서 8조2937억원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2조3661억원에서 5조71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중소기업대출이나 투자자금 수요에 따른 대출 증가로 풀이된다.

예금은행 여신 가운데 기업대출은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확대와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의 자금확보 등으로 증가폭이 2조2221억원에서 4조6408억원으로 늘었다.

가계대출은 생활자금과 투자자금 수요가 늘면서 증가규모가 전년 3조1655억원에서 3조6683억원으로 커졌다.

지난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여신은 증가폭이 전년 2조3661억원에서 5조711억원으로 늘었다. 상호금융은 1조2305억원에서 2조8102억원으로, 신용협동조합은 5775억원에서 9755억원으로, 새마을금고는 6278억원에서 8091억원으로 각각 증가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중소기업대출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5조591억원에서 8조1984억원으로 늘었다.

금융기관 수신의 경우 예금은행은 코로나19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과 주식시장 호황 등으로 자금이 수시입출식예금으로 유입되면서 증가폭이 2조3268억원에서 4조7767억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은 신탁회사와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6조6852억원에서 5조8501억원으로 축소됐다.

최윤희 기자